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학교에서 학부모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학부모는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가지는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안다. 공부를 '절대선'이라 보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강조하게 된다. 학교 진도보다 1, 2년 앞서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부모가 아이를 잡고 있으면 당장은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있다. 부모는 아이를 혼자 해보게 하기보다 배워야 할 것, 배우는 방법, 배워야 할 분량 등을 일일이 간섭한다. 어떤 부모는 이를 잘해 부모 역할을 충실

우리 아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히 하는 거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가더니 성적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시키는 대로만 공부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가 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생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를 놓아주고 지켜보는 일이다. 아이는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속도가 더디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기 꿈'을 찾고 '자기 속도'를 찾아가며 성취감을 조금씩 맛보며 나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유익미한 시행착오'를 부모는 인내와 관심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이끄는 방식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 부모가 '정답'을 알고 있다 해도, 아이 생각

을 존중하며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공부법은 부모와 아이가 '대화'가 통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공부 맛'을 알고 공부를 스스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 공부와 관련하여 하나의 방법으로 '독서'를 강조하고 싶다. 독서는 공부와 여러 면에서 닮아있다. 책을 대상으로 하는 점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점도 그렇다. 초등학교 때 독서 습관은 중학교 이후 학습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책을 집중하고 이해를 하며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유사하다. 축구는 골로 승부가 나는 게임이지만, 슈팅 연습만 한다고 이길 수는 없다. 무엇보다 90분 내내 땀을 흘리는 기초체력이 필요하다. 독서를 바로 학습에서 기초체력이다. 독서를 하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독서 후에 주요 내용과 소감을 말과 글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모든 학습에 그대로 적용된다. 교과서를 덮으면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초등학교 때 편하게 독서를 하면서 중간중간 내용을 떠올리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독서 습관이 잘 갖춰진 아이는 자신이 편하게 보던 책에서 교과서로 책이 바뀌어도 어렵지 않게 적응한다. 점차 많아지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서 '독서력'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부 맛'은 결국 '독서 맛'에 달린 셈이다. 평생학습 시대에서 아이는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가서도 필요하면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시점이 되었든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나가 관건이다. 아이 공부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바로 부모가 조바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다.

사설

제주 청년에게 희망 불어넣는 산실 기대

제주더큰내일센터는 도내 청년들의 취·창업 발굴과 제주형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24일 제주 시 오라동 연북로변에 위치한 곳에서 개소식을 갖고 혁신 인재 육성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큰내일센터는 최근 만 15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 100명을 최종적으로 뽑았습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6개월간 기본의 무교육과 취업·창업·창작 등 유형별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어서 1년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수행형 인턴십, 창업 준비 등 3·4단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총 2년간 실제 취·창업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며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

질 혁신 인재로 양성, 배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는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년동안 월 150만원 수준의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가 도내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으면 합니다. 알다시피 도내 청년들이 하나 둘씩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르게 아닙니다. 제주의 취업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텀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방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고용률이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매우 열악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1·3차 중심의 산업구조에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해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센터가 앞으로 제주의 내일을 바꾸는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는만큼 하나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원 지사의 '원사이드'



오은지 정치부 차장 eojoh@halla.com

제주도의회가 지난 24일 '제2공향 관련 도민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최종 채택하면서 제2공향 건설을 둘러싼 갈등국면이 전환점에 섰다. 하지만 갈등 해소의 길로 향할지,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닫게 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도의회가 이날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한 청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공향시설 확충과 관련 합리적·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의 합의과정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도민 1만 2838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가 격론 끝에 가결한 청원의 건에는 '제주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

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부대의견으로 담겼다. 우선 도지사로서 하여금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도지사가 추진하지 않으면 의회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원 지사가 '공론화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이 부대의견은 사실상 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원 도장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제2공향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청원 가결 환영 입장문을 통해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제주도의회가 준 마지막 기회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 후 김태석 의장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에서도 여러 우려점이 제기됐다. 그 중에는 현재의 첨예한 찬반 갈등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김 의장은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지사가 원사이드하게 찬성쪽으로 가버리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공론화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 지사의 원사이드'도 그렇다.

뉴스-in

"이중삼중 방역으로 철통 방어 구축"

공향 수하물 전수조사 건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항공 수하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소개. 원 지사는 이날 한림항과 애월항을 찾아 화물선과 반입물품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하며 정방건의사항을 소개하고, 이중삼중 방역 실현으로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다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조상윤기자

의 격정도를 수밖에 없는 상황.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리퍼레이드와 개막식이 펼쳐질 27일 이후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축제기간 내내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사반세기를 맞아 새롭게 준비한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비날씨 없기를..." 노심초사

○...서귀포시가 27-29일 칠십리축제 기간 비 예보가 있어 노심초사. 기상청은 현재 27일 오전과 28일 비날씨를 예보한 상태여서 자구리공원 일대에서 펼쳐질 칠십리축제를 공들여 준비해온 읍면동 주민들과 서귀포시 공직자들

의 격정도를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리퍼레이드와 개막식이 펼쳐질 27일 이후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축제기간 내내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사반세기를 맞아 새롭게 준비한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제주시 혼인신고 포토존 인기

○...제주시가 혼인신고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이 추억의 장소로 큰 인기. 최근 거주자 제주도가 아닌 관광객의 경우 신혼여행을 왔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부쩍 늘고 있어 인생 새 출발의 소중한 의미 부여 장소로 각광. 시 관계자는 "정보리와 유채꽃 배경의 포토존은 딱딱한 행정기관 이미지를 벗어나 친근하게 탈바꿈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책개발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전언. 김현석기자

탐방객 급증 사려니숲 화장실 확충 나서야

사려니숲길은 제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숲길로 도내외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숲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탐방객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서귀포시 표현면 남조로변에서 진입하는 탐방객은 70여만 명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서도 하루에 주중에는 1800-2000명, 주말에는 2500-3000명에 이르는 탐방객이 찾고 있습니다. 매년 사려니숲 에코힐링 행사가 열리면서 숲길 명소가 됐습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탐방객이 찾고 에코힐링 행사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탐방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화장실 부족 문제라고 합니다. 사려니숲길 입구에는 지난 해 산림청 예산(5억 원) 지원으로 한

라산둘레길 숲길센터가 들어서 탐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은 숲길센터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애인용, 비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됐지만 특히 여성용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심각합니다. 탐방객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여성들이 남성 화장실 이용객과 뒤엉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일부 탐방객들은 센터 직원들에게 인성을 높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려니숲길이 편의시설 부족으로 탐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의 명품숲길에 걸맞게 하루빨리 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센터만 시설해 놓고 탐방객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탐방객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고 이성필(소현도기 대표) 아버지 전주이공 근우(향년 87세)께서 서귀 2019년 9월 25일 02시 35분경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9월 27일(금) ▶발인일시: 2019년 9월 28일(토)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분향실(1층) ▶장 차: 돈내코 가족묘지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소전환(요섭·향년 8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6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찬중(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6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응후(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6일

정정 공고 본지 2019년 9월 10일 게재된 범인합병 사항 공고 중 등록업종(등록번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서귀포2009-11-21]을 [제주 서귀포2009-11-22]로 정정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강한 계분(산란계)판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자기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